

하천 호우피해 복구 본격 추진

익산시, 총 32개소 · 사업비 118억원 확보... 내년 우기철 이전 재해복구사업 완료

익산시는 올여름 여름 발생한 지역 하천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에 총 118억원을 투입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는 물론 기상이변에 대비한 반복적인 하천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역 하천 피해발생 현황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32개소에

대한 사업비 118억원이 확보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복천 제방 유실 구간 등 하천피해에 대한 기능을 복원하는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시실계용역에 들어간다. 예산편성 즉시 복구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내년 우기철인 6월 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추세에 대비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관련 사업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 난포지구 등 3개소에 대해 31억원의 설계비를 우선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하천(금강) 배수영향구간 정비사업(환경부), 재해예방사업(행안부) 등 주요하천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김성도 시 건설국장은 "수해피해로 인한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노력하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이하 신단공)는 관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10개 기업과 함께 2023 두바이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두바이 자동차 부품 전시회 참가

군산시 10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협약 체결

군산시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이하 신단공)는 관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10개 기업과 함께 2023 두바이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UAE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 전시회는 자동차 부품 및 정비, 정비기기, 액세서리, 휠, 커스터마이징, 타이어·배터리, 수리·유지보수 제품을 중심으로 규모와 명성이 있는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신기술 R&D를 위해 관련 전문가인 (사)전북공형산업협회,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함께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들도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을 겨냥한 각종 80여개사 바이어 상담 및 세일즈에 주력, 총2건 5억원의 'BMW 520d Front'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의회, 2023 행정사무감사 앞서 불편사항 등 접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11.16~11.24)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시민제보를 받는다.

시의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제보를 접수 받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보에 의견을 남기거나 전화(450-5840)·팩스(452-8156) 및 방문 접수(시민봉사계 10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김영일 의장은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일본 현지 언론 · 미디어 공략, 익산관광시대 연다

익산시 · 문화관광재단, 일본 현지 마케팅 · 규슈지역 언론인 대상 익산 미식 · 역사문화탐방 팸투어

익산시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일본 현지 언론·미디어를 중심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며 익산관광시대를 열어간다.

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과 지난 6일 일본 규슈지역 언론인 대상으로 익산의 미식과 역사문화탐방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본 규슈지역 언론인 대상 팸투어는 서일본신문, KBC규슈아라방송, RKB미야기방송, 월간규슈왕국 잡지사 등 규슈지역의 영향력 있는 방송사와 신문사가 참가해, 미륵사지 등 익산의 우수한 관광지와 역사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무안공항 하이에어 전세기 활용 전라도 미식과 전통문화 체험 팸투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익산시의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으로 익산 지역이 포함되게 되었다. 특히 익산문화관광재단 김세만 대표이사는 직접



한국관광공사 일본 후쿠오카지사와 협의하여 이번 팸투어를 성사시켰다.

이어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제일교포 미야모토 회장 및 일본 방송 제작 회사의 프로듀서인 아케노노 마스이 대표를 필두로 한 일본인 방문단의 익산 투어가 진행됐다.

일본인 관광객 유치 및 백제권 특집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회의를 시작으로 춘포역 미륵사지 등 일본에 대한 아낌이 있는 관광지들을 방문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관광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3회 회의 개최

군산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6월 민간위원 11명과 김미정 부시장을 포함한 관련 정 부위원 공익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국대 안보전략연구원 정주호 센터장의 단지 개발 가능성 연구 중간보고와 지난 7월 민관

협의회 위원들의 제주 해상풍력 발전 단지 견학 및 지역 상생 방안 선진사례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 2회 회의에서는 목포해양대학교 김철승 교수를 초청해 해상풍력 입지 타당성을 위한 해상교통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 안전 처리를 하기도 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특강을 비롯,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수산업 공존 방안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시는 이를 통해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필수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소식 통

군산시보건소, C형간염 항체검사 무료 실시

군산시보건소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군산시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만성 간질환이다.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되며 주로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또는 재사용,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 수혈, 혈액부식, 성접촉, 소독하지 않은 도구로 문신 또는 피어싱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되며,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지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공직자강 비리 엄정 대응 나서

익산시가 공직자 비리에 대해 온정 없는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공직자강 감찰 결과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 2명이 적발돼, 이들을 우선적으로 대기 발령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자체 조사에 더해 별도의 감찰을 진행한 삼급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위반행위자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일벌백계 처분의 강한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각종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상자들을 대기 발령 조치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비위 공직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